

보도일시	2024. 5. 7.(화) 배포 즉시		총 4쪽(붙임 1쪽 포함)
문의	홍보담당	기반조성팀	박혜주 차장 02-580-3282
	사업담당	기반조성팀	박혜주 차장 02-580-3282

공연예술 트렌드와 담론을 교류하는 콜로키움

- 제1회 '공진단 블랙데이' 개최 -

- 5. 10.(금), 공연예술 전문가 초청 강연 '공진단 블랙데이' 연출편 개최
- 고선웅, 남인우, 노우성 연출가의 경험에서 나온 연출의 중요 키워드 강연
- 실제적인 배움과 교류의 장으로 전통예술인의 전문성과 가능성 확장 기대



행사명	제1회 '공진단 블랙데이' 연출 편
일시	2024. 5. 10.(금) 19:00
장소	전통공연창작마루 광우대
주최/주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강연자	고선웅, 남인우, 노우성
소요시간	120분
관람료	무료 (선착순 50명 마감)
관람연령	15세 이상
공연문의	02-580-3282

- 1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은 공연예술 트렌드와 담론을 교류하는 오프라인 콜로키움 '공진단 블랙데이'를 5월 10일 전통공연창작마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콜로키움: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는 장

이번 행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마스터클래스 형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문화예술에 관한 담론을 교류하는 자리다. 올해 '연출' '기술활용 창작' '홍보마케팅' 세 가지 주제로 공연예술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과 네트워킹 시간을 갖는다.

오늘 5월 10일 열리는 제1회 '공진단 블랙데이'의 주제는 '연출'이다. 무대를 총괄하고 조율하는 연출가에게 필요한 역량과 덕목은 무엇일지, 세 명의 연출가가 강연자로 나서 연출의 세계를 소개한다.

첫 번째 강연자는 서울시극단 단장인 고선웅 연출로 '선언하는 연출', '집중하는 연출' 두 가지 키워드로 <살로메>, <귀토> 등 대표작 연출 사례와 함께 관객이 자연스럽게 즐기고 공감하는 연출에 대한 시각을 제시한다.

두 번째 강연자는 극단 북새통 예술감독 및 상임연출가이자 한양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출강 중인 남인우 연출이 창극 <정년>, <절정> 등의 연출 사례와 함께 '신나는 연출', '사랑하는 연출'이라는 키워드로 연출가로서 중요한 가치관과 자기만의 언어가 담긴 공연을 연출하는 법을 전한다.

창작공작소 레쉬트(RESHITH) 대표이자 한국 최초로 시즌제 뮤지컬 <셜록 홈즈>를 선보인 노우성 연출은 '상상하는 연출', '선택하는 연출'이라는 키워드로 창조의 가치와 교감하는 연출에 대한 생각을 전한다. 각 강연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발행하는 공연예술 전문 계간지 '공진단 블랙'에 기사로 발행될 예정이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김삼진 이사장은 "이런 실제적인 배움과 교류의 장을 통해 전통예술인의 전문성과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 2 -

전했다.

‘공진단 블랙데이’는 5월 10일 ‘연출편’을 시작으로 7월에 ‘기술활용 창작’, 11월에 ‘홍보마케팅’을 주제로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는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 50명의 관객을 사전 접수받고 잔여석에 한해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 (www.kotp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02-580-3282)

붙임. ‘공진단 블랙데이’ 연출편 행사 개요 4

붙임 제1회 ‘공진단 블랙데이’ 연출편 행사 개요

□ 행사개요

- 행사명: 제1회 공진단 블랙데이 연출편
- 일시: 2024. 5. 10.(금)
- 장소: 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
- 주요내용: 공연예술과 각 분야 전문가 초청 강의와 네트워크, 토론의 장
- 진행일정

시간	내용	비고
19:00 ~ 19:10	인사말 및 행사소개	
19:10 ~ 19:30	Part 1. 선언하는 연출, 집중하는 연출	고선웅 연출가
19:30 ~ 20:00	Part 2. 신나는 연출, 사랑하는 연출	남인우 연출가
20:00 ~ 20:20	Part 3. 상상하는 연출, 선택하는 연출	노우성 연출가
20:20 ~ 20:40	질의응답	
20:40 ~ 21:00	참여자 네트워킹	로비

- 강연자
 - 고선웅: 서울시극단 단장, 전 경기도립극단 예술감독. 대표작 창극 <살로메>(2024), <귀토>(2021), 연극 <은>(2023) 외
 - 남인우: 극단 북새통 예술감독 및 상임연출, 전 국립극단 책임연구원, 한양대·한예중 등 출강, 대표작 창극 <정년이>(2023), <절창>(2021) 외
 - 노우성: 창작공작소 레히 대표, 한국 최초 시즌제 뮤지컬 <셜록홈즈> 연출, 대표작 <춘향·날개를 뜬 새>(2023), 뮤지컬 <셜록홈즈>(2023) 외